

2월 평창, 성공 가능성 UP

'G-38' 경기장·교통… 손님맞이 준비 끝, 역대 최고성적 기대

세계인의 겨울스포츠 대축전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을 슬로건으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등지에서 17일간 펼쳐진다.

역대 가장 많은 90여개국이 참가해 102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띤 경쟁을 한다. 대회 기간 선수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계자, 각국 올림픽위원회(NOC)와 국제스포츠단체 그리고 미디어 관계자 등 4만 5000여명이 강원도를 찾을 전망이다.

두 번의 고배를 든 끝에 힘겹게 유치를 확정한 만큼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국민적 열원을 담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경기가 열리는 12개 경기장과 개·폐막식장인 올림픽 플라자 선수촌은 작년 12월 완공을 선언하고 막바지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올림픽 기간 평창 하늘을 밝힐 성화는 지난해 10월 24일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불꽃을 피웠다.

11월 1일 한국에 도착해 101일간 7500명의 손을 거쳐 전국을 수놓는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안방에서 차려지는 대회인만큼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인 종합 4위(금메달 8, 은메달 4, 동메달 8개)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1992년 알베르빌(프랑스)부터 2014년 소치(러시아)까지 지난 7차례 동계올림픽에서 총 5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 가운데 42개가 쇼트트랙에서 나왔고, 나머지 11개도 스피드스케이팅과 피겨스케이팅 등 빙상 종목에 국한됐다.

설상 종목에서는 메달이 전무했지만 평창에서는 스キー·스노보드·썰매에서도 메달에 도전한다.

특히 불모지나 다름없는 스켈레톤과 봅슬레이에는 홈 트랙의 이점을 최대한 살린다면 메달 가능성이 높다.



수호랑(왼쪽)과 빙다비, 평창 동계 올림픽·파크리미픽 마스코트

서울올림픽(종합 4위)과 한일월드컵(4강) 등 안방에서 치러진 대회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한 만큼 이번에도 여러 종목에 걸쳐 균형 있게 메달을 획득, 진정한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개막까지 38일이 남은 상황에서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 흥행성공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멀지지 못했다.

우선 동계올림픽 최고 인기종목인 아이스하키는 반쪽 대회로 치러질 위기에 놓였다.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모인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가 일찌감치 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세계 2위 리그인 러시아 대륙간아이스하키리그(KHL)도 러시아 도핑 파문의 영향으로 참가를 확정하지 못했다.

동계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피겨스케이팅도 남녀 싱글 최강자인 하뉴 유즈루(일본)와 예브게니아 메드베데바(러시아) 모두 부상을 앓고 있다.

더욱이 메드베데바는 러시아 선수가 아닌 중립국 선수 자격으로 만 올림픽 참가가 가능해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악재로 평창올림픽 흥행에 짜증불이 커졌지만 새해 벽두에 전해진 희소식은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했다.

평창올림픽 성공개최의 최대 변수인 북한이 평창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성과적 개최"와 함께 대표단 파견까지 언급했다.

북핵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참가국들이 평창에 오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인 것이다.

북한이 평창에 선수단을 보내다면 흥행과 인천에 대한 북한 관련 변수를 한꺼번에 셧아낼 수 있다. 더욱이 평창올림픽은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트는 평화올림픽으로 세계 시야에 길이 남을 전망이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대표단 파견 등에 관한 북측의 입장 표면을 환영한다. 정부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의하여 민관의 대책을 갖추겠다"며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서 이제 역대 최고·최대의 겨울축제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뉴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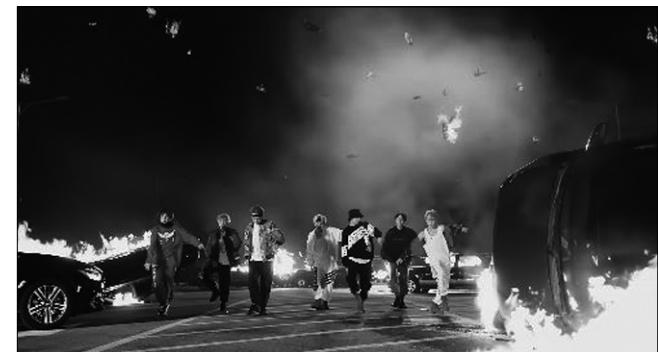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방탄소년단 '마이크 드롭' 1억뷰 돌파… 역대 뮤비 12번째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의 '마이크 드롭(MIC Drop)' 리믹스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다.

2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과 세계적인 DJ 스티브 아오키(Steve Aoki), 신예 래퍼 디자이너(Designer)의 컬래버레이션으로 화제가 됐던 '마이크 드롭' 리믹스 버전 뮤직비디오는 이날 0시37분께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넘었다.

방탄소년단의 최근 앨범 '러브 유어셀프 승 허'(LOVE YOURSELF 承 'Her')의 수록곡 '마이크 드롭'에 스티브 아오키판의 감각적인 리믹스와 디자이너의 에너지 넘치고 자유로운 래핑을 더한 방탄소년단판의 스웨그 넘치는 곡이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쩔어', '불타오르네'(FIRE), '괴 땀 눈물', '강남자', '셰이브 미' '낫 투데이', '봄날', 'DNA', '낸저' '아이 니드 유', '薅름전쟁'에 이어 '마이크 드롭' 리믹스 버전이 12번째로 1억뷰를 돌파하며 한 국가수 최다 1억뷰 뮤직비디오 보유 기록을 세우게 됐다.

방탄소년단은 이와 함께 미국 ABC 방송의 유명 신년맞이 쇼에 출연한다. 물론 전 세계의 많은 시청자들로 인해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쇼다. 2012년 싸이가 '무한도전' 멤버 유재석, 노홍철과 함께 타임스퀘어에서 강남스타일을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1월 13~14일 구로구 고척동 고척스카이돔에서 글로벌 공식 팬클럽 애미(ARMY) 4기 팬미팅 BTS 4TH 머스터 - 해피 에버 애프터를 연다.

/뉴스

'방탄소년단'의 '마이크 드롭(MIC Drop)' 리믹스 뮤직비디오 한장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저녁 방송된 미국 신년맞이 쇼인 ABC-TV '덕 클라크스 뉴이어스 로킹 이브'에 출연한 방탄소년단은 DNA와 '마이크 드롭' 공연 무대를 선보였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1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s)에 초청 받아 미국 LA를 방문했을 당시 '뉴이어스 로킹 이브' 녹화를 진행했다. 매년 새해가 밝기 전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의 유명 신년맞이 쇼에 출연한다.

해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쇼다. 2012년 싸이가 '무한도전' 멤버 유재석, 노홍철과 함께 타임스퀘어에서 강남스타일을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1월 13~14일 구로구 고척동 고척스카이돔에서 글로벌 공식 팬클럽 애미(ARMY) 4기 팬미팅 BTS 4TH 머스터 - 해피 에버 애프터를 연다.

이야기를 노래한다.

엠버와 루나가 SM의 음원 플랫폼 '스테이션'에 참여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시즌 1을 통해 유명 DJ 리하브(R3hab)과 함께 작업한 '웨이브', 세계적인 DJ 페리 코스텐 카고 팽치와 컬리버레이션한 '하트비트'를 공개했다.

한편 '스테이션' 시즌 2는 매주 다양한 아티스트, 프로듀서, 작곡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완성도 높은 음원 및 콘텐츠를 선보이는 플랫폼이다.

/뉴스

'f(x)' 엠버·루나, SM '스테이션' 시즌2 호흡



걸그룹 'f(x)' 엠버와 루나가 SM '스테이션' 시즌 2를 통해 호흡을 선사한다.

2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엠버와 루나는 '스테이션' 시즌 2의 39번째 주인공이자 2018년 첫 주자로 나선다.

오는 5일 오후 6시 음악 사이트를 통해 신곡 '로어(Lover)'를 공개한다.

'로어'는 엠버와 루나의 보컬과 신시사운드가 잘 어우러진 동활적인 분위기의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장르다. 뮤지컬 자유의 공간을 찾아 나아가는

'8연승 견인' 오세근, 버튼 제치고 3R MVP

동안 코트를 누볐다.

경기당 평균 18.1점으로 국내 선수 최다 점수를 올렸다.

리바운드 역시 국내 선수 중 가장 많은 9.2개를 잡아냈다.

3리운드 선수 효율성 지수(PER) 지표에서도 국내 1위에 오르는 등 둘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오세근의 활약으로 KCC는 3리운드에서 8연승을 거두는 등 공동 4위 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다.

KBL은 오세근에게 기념 트로피와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뉴스



안양 KCC의 8연승을 이끈 오세근(30·200cm)이 시즌 두 번째 리운드 MVP에 선정됐다.

KBL은 2일 3리운드 최우수선수(MVP) 투표에서 오세근이 총 유효투표수 106표 중 49표를 획득해 원주 DB 디온테 버튼(35표)를 14표 차로 따돌리고 MVP에 뽑혔다고 밝혔다.

1리운드에 이어 3리운드에서

도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선수로 선정되며 개인 통산 5번째 리운드 MVP를 차지했다.

오세근은 3리운드 팀이 차를 9경기에 모두 출전해 평균 33분 44초